

# 《孟子·公孫丑(上)》‘知言’句의 의미연구\*

이소동\*\*

---

## ◁ 목 차 ▷

- I. 서론
  - II. 역대 주석서 분석
    - 1. 誠辭知其所蔽
    - 2. 淫辭知其所陷
    - 3. 邪辭知其所離
    - 4. 遁辭知其所窮
  - III. 통사적 의미
  - IV. 어휘적 의미
  - V. 결론
- 

## I. 서론

《孟子·公孫丑(上)》편의 2장은 소위 ‘浩然之氣’장으로, 孟子 浩然之氣 사상의 요체를 수록하고 있어, 그 철리적 의미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孟子가 浩然之氣라는 말을 꺼낸 동기를 살펴보면, 孟子의 제자 公孫丑가 孟子에게 不動心의 방법을 묻자 孟子는 北宮黝, 孟施舍, 曾子의 부동심에 대해 먼저 비교해서 설명한 다음, 자신의 장점 중 하나인 호연지기를 잘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때 맹자가 자신의 부동심을 기르는 방법이자 자신의 장점으로 호연지기 외에 또 하나를 언급하였는데, 바로 ‘知言’이다.<sup>1)</sup> 이처럼 맹자가 부동심을 기르

---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3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조교수

1) 安井衡, 《孟子定本·公孫丑(上)》: 「敢問夫子惡乎長?」曰「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선생님께서서는 무엇을 잘 하시는지요?” 말하기를 “나는 말을 알고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라고 하였다.)《漢文大系》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10쪽.

기 위해 말(言)과 氣를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이 두 항목이 動할 수 있는 마음(心)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여겨서이다. 즉 말(言)은 마음(心)에서 나오고 氣는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知言’에 관련된 부분은 호연지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다. 관련 원문을 모두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何謂知言?”曰, “諛辭知其所蔽, 淫辭知其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 生於其心, 害於其政, 發於其政, 害於其事. 聖人復起, 必從吾言矣.”<sup>3)</sup>

이 가운데 밑줄이 있는 6언 4구의 24글자가 ‘知言’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단어의 높은 추상성으로 인해 주석가의 의견이 상당히 다르며 대부분의 주석이 매 구의 의미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고 사전적인 1차 의미로만 파악하고 넘어가기 마련이었다. 맹자 ‘知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파악은 그 중요성에 있어 호연지기와 대등하지만 현재까지 연구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한 셈이다. 본 문은 맹자 ‘知言’구에 대한 정확한 의미파악을 통해 호연지기와 더불어 맹자 사상의 수양적 방편이었던 ‘知言’에 대해 그 사상적 깊이를 이해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언어학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통사적, 어휘적 양 측면에서 접근하여 결론에 도출할 것이다. 먼저 통사적으로 당시의 언어현상에 비추어 그 통사 구조에 대해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문장 속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역대 문헌과 공구서, 주석서를 참고하여 각 단어가 가지는 어휘 의미에 대해 밝힘으로써 전체 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낼 것이다.

2) 安井衡, 《孟子定本·公孫丑(上)》: 「告子曰不得於言, 勿求於心, 不得於心, 勿求於氣. 不得於心, 勿求於氣, 可, 不得於言, 勿求於心, 不可.(고자가 말하기를 “말에서 얻지 못했다면 마음에서 구하지 말고 마음에서 얻지 못했다면 氣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마음에서 얻지 못했다면 氣에서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옳지만, 말에서 얻지 못했을 때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 한 것은 옳지 않다)」(《漢文大系》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8쪽.

3) 위의 책, 12쪽.

## II. 역대 주석서 분석

본 연구에서 저본으로 삼은 《孟子》 판본은 1984년 일본에서 편찬한 《漢文大系》본 《孟子定本》으로, 趙岐의 《孟子章句》와 朱熹의 《孟子集注》, 그리고 日人 安井衡의 《集疏》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한 주석서 가운데, 《孟子章句》 계통은 송대 孫奭의 《孟子正義》와 청대 焦循의 《孟子正義》이며 《孟子集注》 계통으로는 黎靖德이 편찬한 《朱子語類》, 眞德秀의 《孟子集編》, 蔡模의 《孟子集疏》, 趙順孫의 《孟子集注纂疏》, 胡炳文的 《孟子通》, 胡廣의 《孟子集注大全》, 그리고 현대인 楊伯俊의 《孟子譯註》 등이다. 이 중에서 趙岐의 《孟子章句》, 朱熹의 《孟子集注》, 그리고 孫奭과 焦循의 《孟子正義》, 楊伯俊의 《孟子譯註》의 의견이 비교적 상세하고 기타 주석서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들의 의견을 위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기타 주석서의 견해도 언급하기로 하겠다.

### 1. 諛辭知其所蔽

먼저 趙岐는 이 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해하였다.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비유를 들어 남을 칭찬함이 있는데, 예를 들어 賓孟이 수탉이 스스로 그 꼬리를 자르는 일을 말함에 있어서는, 子朝를 높여서 子孟을 폐위시키려 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人有險諛之言, 引事以褒人, 若賓孟言雄鷄自斷其尾之事, 能知其欲以譽子朝蔽子孟也)<sup>4)</sup>

趙岐는 ‘諛辭’를 ‘險諛之言’이라 하였는데, 이는 초순의 고증에 의하면 간사하게 아첨하는 말이다. 趙岐가 든 “賓孟言雄鷄自斷其尾之事(빈맹이 수탉이 스스로 그 꼬리를 끊는 일에 대해 말하다)”의 일화는 《左傳·昭公22年》의 일로 王子朝의 스승인 賓孟이 王子朝를 태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 우연히 수탉이 스스로 그 꼬리를 끊는 장면을 보고 景公을 찾아가 王子朝를 찬미하여 태자의 지위에 오르게 하고 태자의 자리에 있던 王子孟을 스스로 폐위토록 한 일이다.<sup>5)</sup> 趙岐의 주해에 의

4) 趙岐, 《孟子章句·公孫丑(上)》: 《孟子定本》, 《漢文大系》 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12쪽.

하면 “諛辭知其所蔽”는 “간사하게 아첨하는 말로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들음에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을 폐위시키려는지 안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통사적으로 볼 때 趙岐의 분석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목적어인 ‘其所蔽’를 ‘諛辭’가 폐위시키려는 자로 분석하고, 예시에서 보듯이 그 대상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만 ‘諛’의 의미를 ‘아첨하다’, ‘蔽’를 ‘폐위시키다’로 풀고 있는 점은 상고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경우 구 전체의 의미가 상당히 구체적이게 되는데, 孟子가 ‘知言’에 대한 자기의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견해를 펴고 있는 맥락에서 볼 때 구체적인 일례를 통한 주장은 분명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趙岐의 주를 母注로 삼아 疏를 했던 송대 孫奭과 청의 焦循은 이와 조금 다르다. 손석은 ‘諛辭’를 ‘偏諛不平(치우쳐 공평하지 않음)’으로 ‘蔽’를 ‘蔽于一曲(하나의 왜곡된 마음에 가려짐)’으로 풀이하여, 전체 의미를 “한쪽으로 치우쳐 공평하지 못한 말을 함에 그 마음속이 어떤 병폐에 가려져있는지(빠져 있는지)를 안다”<sup>6)</sup>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所字구조 ‘所蔽’가 가리키는 것이 趙岐와 완전히 달라진다. 즉 조기의 주해대로라면 ‘所蔽’는 ‘(무엇을) 가리는 바’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손석은 ‘(어디 혹은 무엇에) 가려지는 바’의 의미로 장소 혹은 주체를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의견의 대립은 4구의 所字구조에 모두 해당이 된다. 고대한어 所字구조의 기능상 양자의 분석에는 모두 문제가 없지만, 전체구조의 통사적, 어휘적 고찰에 따라 정확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선 3장과 4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초순은 ‘諛’의 의미를 정확히 고증하여 趙岐가 ‘諛’를 ‘險諛之言’이라 풀었던 것에 반대하고 《說文》에서 ‘諛’를 ‘辨論(나누어 논함)’이라고 하여 단옥제가 ‘分析’의 의미로 주했던 것에 근거하여 ‘偏(치우침)’의 의미로 풀이를 하였다.<sup>7)</sup> 구 전체의 의미는 손석과 다르지 않다.

송의 주희 역시 손석과 초순의 의견과 동일하다. 주희는 ‘諛’를 ‘偏陂’로 ‘蔽’를 ‘遮隔’이라고만<sup>8)</sup> 했지만 《朱子語類》에서 “諛辭”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느 한 쪽에 가

5)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90, 1432~1435쪽 참고.

6) 孫奭, 《孟子注疏》: 「孟子言人有偏陂不平之言, 我則知其蔽于一曲而已」(《十三經注疏》第11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82쪽.

7) 焦循, 《孟子正義》: 「說文言部云: “諛, 辨論也. 古文以爲頗字.”, …, 段氏玉裁說文解字注云: “凡從皮之字, 皆有分析之意”, 分則偏, 偏則各持一說, 則辨論, 此諛之正義也」(《孟子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7), 211쪽.

려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楊氏는 ‘爲我’에 가려져 있고, 墨氏는 ‘兼愛’에 가려져 있으니 모두 치우친 것이다<sup>9)</sup>라 하여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현대의 양백준과 일인 안정형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 2. 淫辭知其所陷

趙岐는 다음과 같이 주해하였다.

과장되고 꾸며진 말이 있는데, 마치 驪姬가 晉獻公을 꾀어 申生에게 (曲沃 땅을) 주게 하는 일과 같은 것이데, 그를 빠뜨려 해치려 함을 알 수 있다.(有淫美不信之事, 若驪姬勸晉獻公與申生之事, 能知其欲以陷害之也)<sup>10)</sup>

趙岐는 ‘淫辭’를 ‘淫美不信之事’라 하였는데, 과장되고 꾸며져 믿을 수 없는 말, 즉 巧言을 뜻한다. “驪姬勸晉獻公與申生之事”는 《左傳·莊公28年》의 일로 驪姬가 태자 申生을 죽이고 자기의 아들을 옹립하기 위해 진현공에게 교묘한 말로 태자 申生으로 하여금 곡옥 땅을 다스리게 하여 그를 모함하여 죽인 일을 말한다.<sup>11)</sup> 趙岐의 주해에 근거하면 이 구절은 “과장되고 교묘한 말을 들음에 그 마음에 누구를 함정에 빠뜨려 해하려 함을 안다” 정도로 풀이될 수 있다. 이에 손석은 ‘淫辭’를 ‘지나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過而不中之言)’이라 하였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서는 지나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함이 있는데, 나는 그 말이 빠져 있는 바를 알고 빠져 있다는 것은 가려지지 않은 곳이 없음이다. 마치 사람이 함정에 떨어졌을 때의 빠짐과 같이 가려지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다.

8) 朱熹, 《孟子集注·公孫丑(上)》; 《孟子定本》, 《漢文大系》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19쪽.

9) 黎靖德 편, 《朱子語類》卷52: 「見諛辭則知人之蔽於一偏, 如楊氏蔽於爲我, 墨氏蔽於兼愛, 皆偏也」(《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700冊, 台灣, 台灣商務印書館, 1983), 67쪽.

10) 趙岐, 《孟子章句·公孫丑上》; 《孟子定本》, 《漢文大系》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13쪽.

11)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90, 239~242쪽 참고.

楊墨의 無父無君의 말이 이것이다.(孟子言人有過而不中之言, 我則知其所陷而陷又無所不蔽而已, 如人墜于陷井之陷, 以其無所不蔽也, 若楊默無父無君之言是也)<sup>12)</sup>

손석의 주해에 의하면 '陷'의 의미 또한 趙岐와 다른데, '陷'을 '無所不蔽(가려지지 않은 곳이 없다)'라 하였다. 손석이 '蔽'의 의미를 '蔽于一曲(하나의 왜곡된 마음에 가려짐)'이라고 한 점을 감안한다면, '陷'의 의미는 가려진 정도가 심함, 즉 (구덩이에) 빠져서 완전히 다 가려짐을 의미한다. 주희 역시 이 두 구를 의미상으로 연결 지어 둘째구가 첫째구의 심화단계로 보고 있다. 주희는 '淫'의 의미를 '放蕩也(방탕하다)'라고 하여 검증됨이 없이 점차 과장되고 함부로 지껄이는 말이라 하였고, '陷'은 몸이 완전히 거기에 빠진 상태로 마치 물에 빠지면 물만 보이고 물은 보이지 않음과 같은 상태라 하여 가려짐(蔽)이 점점 심하면 완전히 빠지게(陷) 된다고<sup>13)</sup> 하였다.

초순은 '淫'의 자의를 비교적 자세하게 고증하였는데, 《說文》에서 "淫, 浸淫隨理也(음은 점점 결을 따름이다)"의 자해에 근거하여 '淫'의 의미를 "물이 결의 틈을 따라 들어가 점점 그 가운데로 들어가 더 이상 나올 수 없음"이라<sup>14)</sup> 하였다. 또한 《漢書·藝文志》의 九流之學에 대해 언급하면서, 諸家들이 처음에 저마다의 설로 시작하여 점점 一家를 이루어 더 이상 타협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상태를 예시로 삼았다.<sup>15)</sup> 이렇게 볼 때, 손석과 주희, 초순의 의견은 대동소이한데, 이들의 주해에 근거하여 구의 의미를 살펴보면 "과장된 허장성세를 들음에 그 마음이 어디에 완전히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도의 의미가 된다.

12) 孫奭, 《孟子注疏》; 《十三經注疏》第11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82쪽.

13) 黎靖德 편, 《朱子語類》卷52: 「該是偏陂, 說得來一邊長一邊短, 其辭如此則知其心有所蔽矣. 淫是放蕩, 既有所蔽, 說得來漸次誇張, 其辭如此則知其心有所陷矣, 「陷是身溺在那裏, 如陷溺於水, 只是見水而不見岸也」(《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700冊, 台灣, 台灣商務印書館, 1983), 66~67쪽.

14) 焦循, 《孟子正義》: 「淫爲浸淫隨理, …, 蓋水循理隙而入, 浸漸其中, 不能復出」(北京, 中華書局, 1987), 211쪽.

15) 위의 책, 211쪽 참고.

### 3. 邪辭知其所離

먼저 趙岐의 주해를 보면,

사악하고 거짓된 말이 있는데, 마치 豎牛가 仲壬을 꺾어 옥을 받게 하는 일과 같으니, 譖言을 하여 그를 叔孫과 이간질시키려 함을 알 수 있다.(有邪辟不正之辭, 若豎牛勸仲壬賜環之事, 能知其欲行譖毀以離之於叔孫也)<sup>16)</sup>

趙岐는 ‘邪辭’를 글자 그대로 ‘邪辟不正(사악하고 거짓된 말)’이라 풀었다. “豎牛勸仲壬賜環之事”는 《左傳·昭公4年》의 일로 豎牛와 仲壬은 叔孫의 배 다른 두 아들이었는데, 豎牛가 이간질하여 叔孫이 仲壬을 내쫓은 일<sup>17)</sup>을 두고 말한다. 따라서 ‘離’는 ‘이간시키다’의 의미가 되어 구의 전체의미는 “사악하고 거짓된 말을 들음에 그 마음에 누구를 이간질 시키려 함을 안다” 정도가 된다. 손석은 趙岐의 의견과 좀 다르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정도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나는 그 말이 쉽게 위배됨을 안다. 마치 陳賈가 주공도 仁과 智에 있어 완벽하지 못하니 제왕에 있어서이겠는가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孟子言人有悖正道之言, 我則知其言易以離畔矣, 若 陳賈謂周公未盡仁智, 而況于齊王之言是也)<sup>18)</sup>

손석은 ‘邪辭’를 ‘정도에 어긋나는 말’로, ‘離’의 의미를 ‘배반하다’, ‘위배하다’로 풀었다. 하지만 위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손석은 ‘邪辭’의 예로 陳賈가 제왕을 위로하기 위해 주공이 그 형인 管叔에게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자 관숙이 은나라를 가지고 모반을 일으킨 일로 仁과 智에 있어 주공도 완벽하지 않다고 한 말을 언급하였는데,<sup>19)</sup> 아마도 손석은 진가의 말이 관숙인 형과 주공인 동생과

16) 趙岐, 《孟子章句·公孫丑(上)》; 《孟子定本》, 《漢文大系》 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13쪽.

17)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90, 1256~1259쪽 참고.

18) 孫奭, 《孟子注疏》; 《十三經注疏》 第11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82쪽.

19) 安井衡, 《孟子定本·公孫丑下》: 「陳賈曰“王無患焉. 王自以爲與周公孰仁且智?” 王曰“惡! 是何言也!” 曰“周公使管叔監殷, 管叔以殷畔, 知而使之, 是不仁也, 不知而使之, 是不智也. 仁智, 周公未之盡也, 而況於王乎?”」(《漢文大系》 第1冊, 東京, 富山房,

의 천륜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있어 '邪辭'의 예로 들어놓은 듯하다. 주희는 앞 구인 "淫辭知其所陷"의 의미를 심화시켜 구덩이에 빠져 줄곧 正道를 배격하여 그 말이 사벽하여 이미 정도를 떠났음을 의미한다<sup>20)</sup>고 하였다.

초순도 손석, 주희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邪辭'를 윤리도의에 벗어난 말이라 하여 손석과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離'는 곧 주희가 주장했듯이 亂臣賊子の 말처럼 윤리도의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 하여<sup>21)</sup> 그 대상을 분명히 밝혀 놓았다. 이들의 의견에 근거하면 '邪辭'는 곧 정도에서 벗어난 사벽한 말이며 '離'는 곧 정도에서 괴리되어 있다는 의미로 구 전체의 의미는 "사벽한 말을 들음에, 그 마음이 이미 正道에서 벗어나 있음을 안다" 정도의 의미가 된다. 양백준도 '辭'와 '離'의 의미를 동일하게 풀고 있지만 '所'의 변환지시 기능을 분명하게 부각시켜 구 전체의 의미를 "정도에 부합하지 않는 말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이 정도와 괴리되지 않는지를 안다"<sup>22)</sup>라고 하였다.

#### 4. 遁辭知其所窮

趙岐는 이 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해하였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 있는데, 마치 秦客이 조정에서 廋辭(수수께끼)를 말한 일과 같은데, 여러 대부들을 난처하게 하려함을 알 수 있다.(有隱遁之辭, 若秦客廋辭於朝, 能知其欲以窮晉諸大夫也)<sup>23)</sup>

1984), 17쪽.

20) 黎靖德 편, 《朱子語類》卷52: 「後來只管陷入裏面去漸漸, 只管說得濶了支蔓淫溢才恁地陷入深了, 於是一向背却正路, 遂與正路相離了」(《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700冊, 台灣, 台灣商務印書館, 1983), 67쪽.

21) 焦循, 《孟子正義》: 「所謂邪說, 卽亂臣賊子, 與其儕類, 將不利於君, 必飾君之惡, 張己之功, 造作語言, 誣惑衆庶是也, …, 則心久離於倫理道義, 乃至於是, 故邪辭由於有所離也」, 北京, 中華書局, 1987, 212쪽.

22) 楊伯峻, 《孟子譯註》: 「不合正道的言辭我知道它與正道分歧之所在」, (北京, 中華書局, 1960), 66쪽.

23) 趙岐, 《孟子章句·公孫丑(上)》: 《孟子定本》, 《漢文大系》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13쪽.



趙岐는 ‘遁辭’를 ‘隱遁之辭’라고 하였는데, 손석과 초순의 疏를 참고하면 ‘隱遁之辭’는 오늘날의 수수께끼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다. 趙岐가 든 “秦客度辭於朝”의 일화는 《國語·晉語》에 보이는데, 秦客이 조정에서 수수께끼를 내자 옆에 있던 대부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일을 두고 말한다.<sup>24)</sup> 이 일화로 보건대, 趙岐는 ‘窮’의 의미를 ‘난처하게 하다’ 혹은 ‘말문이 막히게 하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손석과 주희는 趙岐의 의견과 다른데, 먼저 손석은 ‘遁辭’를 ‘屈理之言(이치가 없는 혹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풀어 이치가 없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쉽게 공색해짐을 알 수 있다라고<sup>25)</sup> 하였으니, ‘窮’의 의미는 말의 이치가 맞지 않아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공박해짐을 의미한다. 주희의 의견도 이와 비슷한데, 훨씬 체계적이며 논리적이다.

그 말이 사악하여 이미 正道를 떠났다면, 실제와 맞지 않아 결국에는 (그 말을) 쓸 수 없어 난처한 지경에 이른다. 난처하다는 것은 말을 이어 나갈 수 없음이다. 그러므로 그 말이 모순되니, 모순됨은 정도를 떠난 뒤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楊子가 본래는 하나의 털이라도 아낌으로써(뽑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했지만 뒤에는 친하는 하나의 털이 이롭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夷子는 본래 사랑에 등급이 없다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부모부터 베풀 것을 말하였다. 佛氏는 본래 부모가 없음을 말했지만 뒤에 부모가 법이 됨을 주장했으니, 모두가 遁辭에 해당된다.(其辭邪已離去了正路, 他那物事不成物事, 畢竟用不得, 遂至於窮, 窮是說不去了, 故其辭遁, 遁是其離後走脚底話, 如楊子本是不拔一毛以利天下, 却說天下非一毛所能利, 夷子本說愛無差等, 却說施由親始, 佛氏本無父母却說父母經, 皆是遁辭)<sup>26)</sup>

주희는 ‘諛辭’, ‘淫辭’, ‘邪辭’, ‘遁辭’의 4가지 말의 병폐와 그 근원인 되는 ‘蔽’, ‘陷’, ‘離’, ‘窮’의 4가지 마음의 작용이 서로 연관되어 점점 심화되는 과정으로 보았는데, 그 설명이 상당히 논리적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말이 치우치면(諛辭) 하나의 왜곡된 마음에 가려져(蔽) 있어서이고, 점점 그 말이 과장되면(淫辭) 이미

24) 黃永堂 역, 《國語全譯》,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5, 447쪽.

25) 孫奭, 《孟子注疏》: 「孟子言人有屈理之言, 我即知其言易以窮也」(《十三經注疏》第11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83쪽.

26) 胡廣, 《孟子集注大全》卷3: 《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205冊, 台灣, 商務印書館, 1983, 30쪽.

그 마음이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지경(함)에 까지 미친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더욱 사벽해져(邪辭) 이미 그 마음이 도에서 벗어났음(離)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遁辭’는 사벽한 말이 시간이 가면서 이치에 맞지 않아 말을 회피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함을 뜻하며, ‘窮’은 그 마음에서 자기의 주장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논리가 모두 바닥이 났음(窮)을 의미한다. 초순은 ‘遁辭’를 속이고 숨기는 말로, ‘窮’을 도가 없는 것<sup>27)</sup>으로 풀이하여 이들과 약간의 다른 의견을 견지하였다.

### Ⅲ. 통사적 의미

‘知言’구의 핵심에 해당되는 6언 4구는 모두 대구가 되어 매 구가 동일한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諛辭知其所蔽, 淫辭知其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

네 구가 동일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형식상 모두 “주어+知+목적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어위치에 있는 ‘諛辭’, ‘淫辭’, ‘邪辭’, ‘遁辭’는 동사 ‘知’와의 의미관계상 화제주어로 볼 수 있다. 동사 ‘知’의 뒤에 출현하는 목적어의 형식은 모두 ‘其+所+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명사성성분인 소자구조 ‘所+동사’가 중심어가 되고 대명사 ‘其’가 수식어가 되는 명사성 수식구조이다. 이 문장이 전후의 문장과 관련이 없는 독립 문장임을 감안할 때, 대명사 ‘其’가 가리키는 성분은 주어의 위치에 있는 명사임이 분명하다. 특히 고대한어에서 대명사 ‘其’는 일반적으로 관형어의 위치에서 그 주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sup>28)</sup> 따라서 고대한어 화제주어의 특징으로 볼 때, 명사 ‘諛辭’, ‘淫辭’, ‘邪辭’, ‘遁辭’가 전치되어 화제주어가 되고 그 빈자리에 대명사 ‘其’가 형식적으로 채워진 형태이다.

27) 焦循, 《孟子正義》: 「遁即詐也, 離謂離於道義, 窮謂窮於道義」(北京, 中華書局, 1987), 212쪽.

28) 何樂士 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其’表領屬, 無論代第三人稱或是一二人稱, 在句中常常反指施事者自身」(北京, 語文出版社, 2006年), 294쪽.

일반적으로 ‘所+VP’의 앞에 출현하는 명사나 대명사는 중심어인 所字구조를 수식하는 관형어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VP와 주술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소자구조를 ‘所+VP’가 아닌 ‘NP+所+VP’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때 所字구조인 ‘所+VP’가 가리키는 성분은 VP의 목적어 성분이 됨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其+所+동사’는 그 원형구조라 할 수 있는 서술형식 “其(주어)+동사+목적어”에서 목적어를 가리키는 명사화구조 ‘其+所+동사’로 명사화한 것이다.

첫 번째 구에 해당하는 “諛辭知其所蔽” 구를 가지고 살펴보면, 주어 ‘諛辭’는 본래 동사 ‘知’의 목적어 ‘諛辭所蔽’에서 수식어의 위치에 있다가 대명사 ‘其’로 대체시키면서 문두로 전치하여 화제주어가 된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의미의 핵심은 ‘諛辭所蔽’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변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諛辭 + 蔽 + O	→	諛辭 + 所 + 蔽
(諛辭가 무엇을 가리다)		(諛辭가 가리는 것)

“諛辭知其所蔽”구를 위의 통사구조에 따라 의미를 분석해보면, “諛辭에 있어서는 그 말이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정도가 된다. 즉 어떤 사람이 ‘諛辭’를 말하면 맹자는 그 말이 어떤 사실을 가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諛辭’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형태지만 그 ‘諛辭’를 구사하여 가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어떤 사실을 가리기 위해 ‘諛辭’를 구사하지만 맹자는 그 마음속에 가리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3개의 구도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즉 “某辭+知+其所동사”의 형태에서 ‘某辭’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되는 셈이며 맹자는 그 행위의 진짜 의도 혹은 이유(所+동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趙岐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분석하고 있는데, 통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所字구조는 그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VP의 목적어를 가리키는 ‘所VP’, 개사의 목적어를 가리키는 ‘所介VP’, 생략된 개사의 목적어를 가리키는 ‘所(介)VP’인데, ‘所(介)VP’는 개사의 목적어를 가리키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가 출현할 수 있어 ‘所VP’와 형식적으로 구분이 된다. 하지만 목적어가 출현하

지 않고 동사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두 구조가 형식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동사단독으로 所字와 결합할 때 이 所字구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확히 분석이 필요하다. ‘知言’구에 해당하는 이 4개의 구도 마찬가지로인데, 위에서 분석했듯이 所字구조 ‘所蔽’가 ‘蔽’의 목적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생략된 개사의 목적어를 가리킬 수도 있다. 李昭東(2010)의 연구에 의하면 ‘所(介)VP’구조에서 생략된 개사의 80%가 장소나 주체를 나타내는 개사 ‘於’ 혹은 ‘于’인데, 그 이유는 고대한어에서 개사 ‘於’가 다른 개사에 비해 동사 앞 전치가 가장 늦게 진행되어 대부분의 ‘於’개사구조가 동사의 뒤에서 보어로서 작용하였다. 이러한 원형구조가 所字구조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介詞懸空 현상이 일어나 개사 ‘於’의 탈락을 가져온 것인데<sup>29)</sup>, “諛辭知其所蔽”구를 가지고 보면 아래의 변환과정을 거친 것이다.

諛辭+蔽+於某      →      諛辭+所蔽+於      →      諛辭+所蔽

이렇게 보면 ‘諛辭所蔽’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諛辭所蔽’는 ‘諛辭’가 가리는 대상이 아니라 생략된 개사 ‘於’의 목적어를 가리켜 ‘諛辭의 가려져 있는 방면’, ‘諛辭가 어디에 가려져 있는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諛辭知其所蔽”구의 전체 의미는 “괴사에 있어 그 가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가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諛辭’를 듣고 마음이 어디에 가려져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諛辭’와 ‘蔽’의 의미 관계는 결과와 원인이 된다. 손석을 비롯한 주희, 초순 등이 이러한 구조로 구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知言’구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 차이는 출현하고 있는 所字구문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日人 안정형은 이 두 가지 구조적 의미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諛는 치우친 것이다. 그 말이 치우쳐 바르지 못함에 그 마음에 가려진 바가 있음을 안다. 滯은 지나친 것이다. 그 말이 한 쪽으로 지나침에, 그 마음이 빠져 있는 바를 안다. 사악한 말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이간질 시키려 함을 안다. 滯은

29) 李昭東, 《史記指稱化現象研究》, 북경대학교 박사논문, 2010년, 55~58쪽 참고.

회피하는 것이다. 누가 힐문함에 있어 회피하고 그 말을 바꾸니 그 마음에 뜻뜻하지 못함이 있음을 안다.(設偏陂也. 其辭偏陂不正, 知其心有所見遮蔽也. 淫過也. 其辭過淫於一偏, 知其心有所陷溺也. 邪辟之辭知其心有所欲離間也. 遁迴避也. 人詰問之, 迴避易其辭知其心有所窮屈也)<sup>30)</sup>

안정형의 疏에서 ‘所蔽’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見’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마음에 가려진 어떤 것으로, 가리는 객체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는 주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의 ‘所陷’, ‘所窮’도 동일하게 ‘빠뜨리고’, ‘궁하게’ 하려는 객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빠져 있고 궁한 상태에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즉 “蔽/淫/窮於某”에서 개사 ‘於’의 목적어인 ‘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所離’에서 보면 ‘離’는 이간질을 의미하고 능동적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欲’이 있어, 그 마음이 이간질하려는 대상 목적을 가리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所離’가 ‘離某’에서 동사 ‘離’의 목적어를 가리켜 형성이 된 것이다. 고대한 어에서 명사화구조에 해당하는 所字, 者字구조는 그 역할이 뚜렷하게 나뉘어 져 있다. 예외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은 이 두 허사를 그 기능에 맞추어 정확하게 구사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볼 때 맹자 역시 대구를 이루는 4개의 동일구에서 所字의 제취성분을 달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知言’구에 대한 통사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所字구조가 동사의 목적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개사의 목적어를 가리키는지에 따른 차이이다.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만 모두 타당한 분석이다. 정확한 선택을 위해선 각 단어가 가지는 어휘 의미와 단어 사이의 관계, 그리고 《孟子》가 가지는 단어의 어감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논하기로 한다.

#### IV. 어휘적 의미

본 장에서는 ‘知言’구에 출현하는 ‘設辭’, ‘淫辭’, ‘邪辭’, ‘遁辭’의 네 가지 말의 형태와 ‘蔽’, ‘陷’, ‘離’, ‘窮’의 네 가지 행위가 각각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

30) 安井衡, 《孟子定本·公孫丑(上)》, 《漢文大系》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13쪽.

도록 하겠다.

먼저 ‘諛辭’의 의미를 보면 趙岐는 ‘險諛之言’이라 하여 현란한 말로 아첨하는 말이라 하였다. ‘險諛之言’은 뒤에 나오는 동사 ‘蔽’의 의미와도 비교적 잘 어울린다. 실제로 문헌 속에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출현한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險諛蔽其耳目，鄭衛陳于其前。《三國志·魏書》

만약 ‘諛’를 아첨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所蔽’는 위의 예문과 같이 ‘蔽’의 목적어, 혹은 대상을 가리켜 ‘險諛之言이 가리려고 하는 바’의 의도성이 있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의미 외에 ‘諛’는 손석, 주희, 초순 등이 주장했듯이, ‘偏陂’, ‘偏僻’의 의미도 있다. 만약 ‘諛’의 의미를 ‘偏陂’, ‘偏僻’로 본다면 뒤에 연결되는 ‘所蔽’의 의미는 가리는 주체를 가리켜 “‘諛辭’에서 가려져 있는 바’로 의도성이 없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諛’의 두 의미 ‘險諛(아첨하다)’와 ‘偏陂(편벽되고 치우치다)’는 그 의미구조에 있어 [±의도]의 특징을 가지는데, 즉 아첨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상대를 추켜세우는 행위로 [+의도]의 義素를 가지고 있다. 반면 편벽되고 치우침은 타고난 기질의 요소일 수도 있고 일정한 환경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 기질처럼 형성이 된 것으로 [-의도]의 義素를 가진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知言’구의 ‘諛辭’는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가? ‘諛’와 ‘蔽’가 함께 사용된 용례는 문헌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sup>31)</sup>, 《孟子》의 원본에서 ‘諛’의 사용 용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楊墨의 도가 끊이지 않고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邪說이 백성을 속이고 仁義를 막을 것이다. 仁義가 막히면 짐승을 거느리고 다니며 사람을 먹게 하고 사람들 역시 서로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때문에 두려워 先聖의 도를 보호하여 楊墨을 막고 淫辭를 추방하여 邪說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마음에서 생겨나 일을 해치고 일에서 생겨나 정사를 해치는 것이니 성인이 다시 나와도 나의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중략)..., 나 역시 인심을 바로잡고 邪說을 끊고 諛行을 막으며 淫辭를 추방하여 세 성인을 이으려 하는 자이니 어찌 변론함을 좋아해서이겠는가? 부득이해서이다. 楊墨을 막을 것을 말하는 자는 역시 성인의 무리이다.(楊墨之道不息，孔子之道不著，是邪說誣民，充塞仁義也。仁義充塞，則

31) 北京大學語料庫檢索系統(CCL)에서의 검색 결과임을 밝힘.

率獸食人，人將相食。吾爲此懼，閑先聖之道，距楊墨，放淫辭，邪說者不得作。作於其心，害於其事，作於其事，害於其政。聖人復起，不易吾言矣。……，我亦欲正人心，息邪說，距詖行，放淫辭，以承三聖者，豈好辯哉？予不得已也。能言距楊墨者，聖人之徒也。”《孟子·滕文公下》<sup>32)</sup>

‘詖’의 사용은 《孟子》에서 단 한 차례 보이는데, 인용문에서 밑줄 친 ‘詖行’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詖’자뿐 아니라 ‘知言’구에 있는 ‘淫’, ‘邪’에 대한 용례가 함께 나타나고, ‘知言’구에서 대구가 되는 4구 다음의 내용(作於其心, 害於其事, 作於其事, 害於其政) 또한 함께 출현하고 있어 ‘知言’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맹자의 달변에 대해 제자 公都子가 질문을 하자 주공이나 공자 등의 성인처럼 현재 독버섯처럼 만연해 있는 楊墨의 무리들을 뿌리 뽑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변론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息邪說’, ‘距詖行’, ‘放淫辭’는 ‘距楊墨(楊墨을 뿌리 뽑기)’을 위한 맹자의 노력이며 ‘邪說’, ‘詖行’, ‘淫辭’는 바로 楊墨의 행위임을 알 수 있다. ‘詖行’에서 ‘詖’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데, ‘詖行’은 어떤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의도가 아니라 楊墨의 교리가 세뇌되어 움직이는 편벽되고 치우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詖’는 아첨하다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詖’의 의미를 ‘편벽되고’, ‘치우치다’의 의미로 보면 ‘所蔽’는 당연히 주체를 가리켜 ‘~에 가려지는바’로 풀이가 되어야 한다. 즉 ‘詖辭知其所蔽’구는 “편벽되고 치우친 말에 있어서는 그 말이 (마음에서) 어떤 것에 가려져 나오는지 안다”의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다음으로 “淫辭知其所陷”에서 ‘淫辭’의 의미를 살펴보면, 趙岐는 ‘과장되고 꾸며져 믿을 수 없는 말(淫美不信之辭)’이라 하였고, 손석은 ‘지나쳐서 맞지 않는 말(過而不中)’, 주희는 ‘방탕한 말(放蕩)’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설문에서 ‘浸淫隨理’라고 한 본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인용문의 楊墨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淫辭’는 양목이 전교를 하기 위해 퍼뜨리는, 보편적인 원칙이 아닌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워 주장하는 과장되고 근거 없는 말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은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에 불과하지 사사로이 어떤 사람을 해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所陷’ 역시 ‘所蔽’와 마찬가지로 빠뜨리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어디

32) 安井衡, 《孟子定本·滕文公(下)》, 《漢文大系》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20~21쪽.

에 빠져 있는바'로 이해해야 한다. 즉 전체의 의미는 이러한 '淫辭'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것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맹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음을 뜻한다.

“邪辭知其所離”에서 '邪辭'는 《孟子》 원본에 '邪說'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번 등장한다. 위의 인용문 외에도 '邪說暴行'의 형태로 2회 출현한다. '邪辭'는 주석가들의 의견 차이가 거의 없는데, '정도에 어긋나는 사벽한 말' 정도로 볼 수 있다. '離'는 趙岐와 안정형이 주장했던 '이간질시키다', 손석, 주희, 초순 등이 주장했던 '위배하다', '벗어나다'의 의미 외에도 '걸리다', '당하다', '떠나다' 등의 의미가 있다. '所離'를 앞의 '所蔽', '所陷'과 같은 의미구조로 본다면 趙岐의 '이간질시키다'라는 의미는 옳지 않다. '邪辭'의 의미와 연관 지어 볼 때 '위배하다', '벗어나다'의 의미가 비교적 어울릴 듯한데, 아래의 예를 보자.

凡邪說辟言之離正道而擅作者,無不類於三惑者矣. 《荀子·正名》

문헌에서 '邪辭'와 '離'가 한 문장에 나와 의미관계를 형성하는 용례는 이 예가 유일하다. 《荀子》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 '邪說'이라는 말 자체가 정도에서 떠나고 위배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구 전체의 의미는 “정도에 어긋나는 사벽한 말에 있어서 그 마음이 어디에 위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가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대구를 이루는 4개의 구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 '其所蔽/陷/離/窮'의 중심어는 '所'이다. 즉 맹자가 이러한 말들을 듣고 알아차렸던 것은 그 말이 가려있고, 빠져있고, 벗어나 있고, 궁한 상태에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가려있고, 빠져있고, 벗어나 있고, 궁한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각 상황의 동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장소 혹은 주체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다. 맹자 당시의 戰國시기는 각자의 사설로 일가를 이루어 세력을 형성하던 諸子百家의 시기로, 맹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학설은 모두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당시 세가 컸던 도가와 묵가, 불가 등은 맹자의 첫 번째 타도 대상이었다. 따라서 맹자가 '知言'을 잘한다고 한 맥락은 누가 한쪽의 설에 치우친 말을 늘어놓을 때 맹자는 그 마음이 어느 학파의 설에 가려져 혹은 빠져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邪辭知其所離”구도 마찬가지인데, ‘邪辭’에 그 마음이 正道에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正道의 어느 측면이 괴리되고 위배되어 있는지를 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楊伯峻은 所字구조의 기능을 잘 부각시켜 4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주해하였다.

전면적이지 못한 언사에 있어서 어디에 그 片面性이 있는지 알며, 지나친 언사에 있어 어디에 그 잘못이 있는지 알며, 정도에 맞지 않는 언사에 있어 어떤 부분에서 정도와 괴리되어 있는지를 알며, 더듬거리는 말에 어디에 그 이치가 부족한지를 안다. (不全面的言辭我知道它片面性之所在, 過分的言辭我知道它失足之所在, 不合正道的言辭我知道它與正道分歧之所在, 躲閃的言辭我知道它理屈之所在)<sup>33)</sup>

위와 같은 풀이는 고대한어 所字구조의 변환지시 기능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양백준이 ‘蔽’, ‘淫’, ‘離’, ‘窮’의 4가지 마음의 병폐를 4가지 말의 병폐인 ‘諛’, ‘淫’, ‘邪’, ‘遁’의 의미와 동일시한 점은 잘못되었다.

마지막으로 “遁辭知其所窮”구에서 趙岐는 ‘遁辭’를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라 하였는데, 맹자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초순은 ‘遁’을 ‘詐’라고 보아 속이고 숨기는 말이라 하였는데, 앞의 ‘諛辭’, ‘淫辭’, ‘邪辭’와 비교해보면 역시 좀 무리가 있다. 이들 말은 모두 제자백가의 설들에 대한 성격을 맹자가 추단한 것으로, 어느 사람이 변론을 함에 치우쳐 있고, 빠져 있고, 정도에 벗어난 말의 특징을 묘사한 것이지, 일시적인 목적으로 사사로이 속여서 누구를 해하려는 의도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遁辭’는 손석이나 주희의 의견처럼 이치가 없어 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쉽게 바꾸는 말의 형태로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 ‘遁辭’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窮’해서인데, 초순이 주장한대로 ‘道’가 궁해서이다. ‘所窮’의 의미를 살려 정확히 표현하면, 道의 어느 측면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손석과 주희는 ‘窮’의 의미를 글자 자체의 동작의미에 입각하여 말문이 막히거나 논리가 궁함이라 풀었는데, 앞에서 중심어 ‘所’에 대해 언급했듯이 이는 명사화표기 ‘所’의 변환지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불분명한 의미이다. 따라서 구 전체의 의미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말을 바꿈에 있어 그 마음이 正道의 어떤 측면에 있어 모자라고 취약함을 알 수 있

33) 楊伯峻, 《孟子譯註》, 北京, 中華書局, 1960, 66쪽.

다” 정도가 된다.

## V. 결론

《孟子·公孫丑(上)》 편의 ‘知言’구는 ‘浩然之氣’와 더불어 맹자의 중요한 수양방편이었지만, 형식적 방면에서의 단순한 구조와 ‘호연지기’의 내용에 가려져 현재까지 사전상의 1차적 의미로만 인식되어져 왔을 뿐,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매 구의 의미적 차이에 대해 논하여 진 바가 없다. 이에 본 문에서는 ‘知言’구의 핵심인 6언 4구, 즉 “諛辭知其所蔽, 淫辭知其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를 대상으로 역대 주석서의 주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언어학적 관점에서 통사적, 어휘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통사적으로 고대한어의 화제주어와 대명사 ‘其’의 기능적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의 변화과정을 거친다.

知某辭所V → 某辭知\_\_所V → 某辭知其所V

4가지 말의 병폐인 某辭(‘諛辭’, ‘淫辭’, ‘邪辭’, ‘遁辭’)는 본래 동사 ‘知’의 목적어 ‘某辭所V’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다가 전치되어 화제주어가 되고 본래의 자기 자리에 대명사 ‘其’를 대신해 놓은 것이다. 다음으로 所字구조의 분석에 따라 아래의 2가지 의미구조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①某辭 + V + O → 某辭 + 所 + V  
 ②某辭 + V + 於N → 某辭+所+V+於 → 某辭 + 所 + V

동사단독으로 所字와 결합하는 ‘所V’구조는 의미구조상 동사의 목적어(O)인 대상을 가리킬 수도 있고, 생략된 개사의 목적어(N)인 장소 혹은 주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 만약 동사의 목적어를 가리킬 경우, 그 의미는 “某辭가 가리고(蔽) 빠뜨리고(陷) 위배하고(離) 궁하게(窮) 하는 바”의 의미가 되며, 생략된 개사의 목적어(N)를 가리키면, 그 의미는 “모사가 가려져 있고, 빠져 있고, 위배되고, 취약한 바(곳)”

의 의미로 풀이된다. 단어의 어휘적 고찰을 통해 양자 중 적합한 의미를 취할 수 있는데, 맹자의 원본을 통해서 4가지 말의 병폐가 모두 그 당시 맹자가 이단시 했던 楊墨의 언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나름대로 일가를 이룬 楊墨의 무리들이 전도의 목적으로 구사했던 말들로 그들 말의 성격이라 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어느 한 개인을 폐위시키거나 빠뜨리고 이간질시키려 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所字는 생략된 개사의 목적어인 장소 혹은 주체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知言구의 전체 의미를 상세히 풀면 다음과 같다.

편벽되고 치우친 말을 함은 마음이 가려져서인데, 나는 그 가려진 바가 무엇인지 안다. 과장되고 근거 없는 말을 함은 마음이 빠져 있어서인데, 나는 그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정도에 어긋나는 사벽한 말을 함은 마음이 正道에 위배되어서인데, 나는 正道의 어느 측면에 위배되어 있는지 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말을 바꿈은 마음이 道義가 적어서인데, 나는 道義의 어느 측면에 있어 모자라고 취약함을 안다.

### 【參考文獻】

- 趙 岐, 《孟子章句》; 《孟子定本》, 《漢文大系》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朱 熹, 《孟子集注》; 《孟子定本》, 《漢文大系》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安井衡, 《孟子定本》; 《漢文大系》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孫 奭, 《孟子注疏》; 《十三經注疏》第11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焦 循, 《孟子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7.  
 黎靖德 編, 《朱子語類》; 《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700冊, 台灣, 台灣商務印書館, 1983.  
 蘇 轍, 《孟子解》; 《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195冊, 台灣, 商務印書館, 1983.  
 張九成, 《孟子傳》; 《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195冊, 台灣, 商務印書館, 1983.  
 眞德秀, 《孟子集編》; 《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200冊, 台灣, 商務印書館, 1983.  
 蔡 模, 《孟子集疏》; 《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200冊, 台灣, 商務印書館, 1983.  
 趙順孫, 《孟子集注纂疏》; 《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201冊, 台灣, 商務印書館, 1983.  
 胡炳文, 《孟子通》; 《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203冊, 台灣, 商務印書館, 1983.  
 胡 廣, 《孟子集注大全》; 《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205冊, 台灣, 商務印書館, 1983.

- 楊伯峻,《孟子譯註》,北京,中華書局,1960.  
楊伯峻,《春秋左傳注》,北京,中華書局,1990.  
沈玉成 譯,《左傳譯文》,北京,中華書局,1981.  
黃永堂 譯,《國語全譯》,貴州,貴州人民出版社,1995.  
何樂士 編,《古代漢語虛詞詞典》,北京,語文出版社,2006.  
杜 敏,《趙岐朱熹孟子註釋傳意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4.  
李昭東,《史記指稱化現象研究》,北京大學校 博士論文,2010, 1.

### 【中文提要】

《孟子·公孫丑(上)》篇有這一句話：“諛辭知其所蔽，淫辭知其所陷，邪辭知其所離，遁辭知其所窮”。本文把它叫做‘知言’句。所謂‘知言’跟‘浩然之氣’一起為孟子的兩個主要修養手段。但是‘知言’句因為它的簡單結構而被研究者忽視。目前為止，知言句里出現的詞的詞匯意義以及詞和詞之間的語義關係還不够明確。本文基于前人的注解，從語法和詞匯的角度着手分析知言句。其詳細的意義為：有人說話有点儿偏僻，這可能是因為他的心蒙蔽于什麼東西，我就知道被什麼東西蒙蔽。有人說話有点儿誇張並沒有根據，這可能是因為他的心陷入于什麼地方，我就知道在什麼地方陷入。有人說話有点儿邪惡，這可能是因為他的心違背正道，我就知道違背正道的什麼地方。有人說話前後矛盾，這可能是因為他的心缺少道義，我就知道缺少道義的什麼地方。

### 【主題語】

諛辭, 淫辭, 邪辭, 遁辭, 知言, 孟子, 公孫丑, 所字結構

투고일: 2014. 10. 15 / 심사일: 2014.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4. 11. 10